

## 사미인곡(思美人曲)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509월 평가원]

(가)

17. 동풍이 건뒸 불어 적설(積雪)을 헤쳐 내니
18. 창 밖에 심은 매화 ㉠ **두세 가지 피었어라**
19. 가뜩 냉담한데 암향(暗香)은 무슨 일고
20. 황혼의 달이 좇아 ㉡ **베개 밑에 비치니**
21. 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임이신가 아니신가
22. 저 매화 꺾어 내어 임 계신 데 보내고저
23. 임이 너를 보고 어땠다 여기실꼬
24. 꽃 지고 새 잎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25. 나위(羅幃) 적막하고 수막(繡幕)이 비어 있다
26. 부용(芙蓉)을 걷어 놓고 공작(孔雀)을 둘러 두니
27. ㉢ **가득 시름 많은데** 날은 어찌 길던고
28. 원앙금(鴛鴦錦) 베어 놓고 오색선(五色線) 풀어 내어
29. ㉣ **금자로 겨누어서** 임의 옷 지어 내니
30. 수품(手品)은 물론이고 제도(制度)도 갖출시고
31. 산호수(珊瑚樹) 지게 위에 백옥함(白玉函)에 담아 두고
32. ㉤ **임에게 보내려고** 임 계신 데 바라보니
33.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34. 천리만리 길에 뉘러서 찾아갈꼬
35. 가거든 열어 두고 나인가 반기실까

- 정철, <사미인곡(思美人曲)>

(나)

짐을 치면, 정화수(精華水) 잔잔한 위에 아침마다 새로 생기는 물방울의 선선한 우물집이었을래. 또한 윤이 나는 마루의, 그 끝에 평상(平床)의, 갈앉은 뜨락의, 물 냄새 창창한 그런 집이었을래. 서방님은 바람 같단들 어느 때고 바람은 어려 올 따름, 그 옆에 순순(順順)한 스러지는 물방울의 찬란한 춘향이 마음이 아니었을래.

하루에 몇 번쯤 푸른 산 언덕들을 눈 아래 보았을까나. 그러면 그때마다 일렁여 오는 푸른 그리움에 어울려, 흐느껴 물살 짓는 어깨가 얼마쯤 하였을까나. 진실로, 우리가 받들 산신령은 그 어디 있을까마는, 산과 언덕들의 만리(萬里) 같은 물살을 굽어보는, 춘향은 바람에 어울린 수정(水晶) 빛 입자가 아니었을까나.

- 박재삼, <수정가>

(다)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 황지우, <너를 기다리는 동안>

[8%]

1.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이별의 동기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 ② 회상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현실을 초월하려는 종교적 신념이 드러나 있다.
- ④ 서글프면서도 강렬한 설득적 어조가 드러나 있다.
- ⑤ 사랑하는 대상과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14%]

2. <보기>는 (가)의 작가가 쓴 한시(漢詩)이다.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보기>

궁궐 담 남쪽 언덕에 나무는 푸르고 푸르리니  
 돌아가는 꿈이 멀리멀리 옥당(玉堂)에 오른다  
 두견새 슬피 울자 산에 대나무가 찢어지니  
 고신(孤臣)의 머리털이 이때에 더욱 세어진다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38%]

★★★★

3. (가)의 시상 전개 과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때, (가)과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기대감의 이유	현실의 확인	현실 극복을 위한 행위
봄	동풍	(가)	저 매화를 꺾어 임 계신 데 보내고자 함
여름	새 잎	나뭇 가지가 적막하고 수막이 비어 있음	(나)

(가)

(나)

- ① 녹음이 깔림      제도를 잘 갖추
- ② 암향이 일어남      백옥함에 담아 둠
- ③ 산과 구름이 험함      오색실을 풀어 냄
- ④ 적설을 헤쳐 냄      부용을 건어 놓음
- ⑤ 가뭄 냉담함      임의 옷을 지어 냄

## 속미인곡(續美人曲)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306월 평가원]

(가)

천 리라 내 고향은 칩칩 **봉우리** 저쪽  
돌아가고 싶은 마음 언제나 **꽃** 속이네.  
한송정 곁에는 외로운 **달빛**이요  
경포대 앞에는 한 때의 **바람**이리.  
모래밭의 백구는 모였다 흩어지고  
물결 위의 어선들은 왔다갔다 하였네.  
언제나 다시 임영(臨瀛)<sup>1)</sup>의 **길**을 밝아  
때때옷에 춤추며 슬하에서 옷 지을꼬.

- 사임당 신씨, <사친(思親)>

1) 임영 : 강릉의 옛 이름.

(나)

반중(盤中) 조홍(早紅)감<sup>1)</sup>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柚子)가 아니라도 품음 직도 하다마는,<sup>2)</sup>  
품어 가 반길 이 없을새 그로 설위하나이다.

- 박인로, <조홍시가(早紅柿歌)>

1) 조홍감 : 일찍 익은 붉은 감.

2) 유자가 ~ 하다마는 : 후한(後漢)의 육적이 남의 집에 갔다가 대접 받은 굴[유자]을 먹지 않고 어머니를 위해 품고 왔다는 고사에서 곱어온 표현.

(다)

22. 님다히<sup>1)</sup> 소식을 어떻게든 알자 하니
23.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람 올까.
24.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잔 말가.
25. 잡거니 밀거니 **높은 뾰**에 올라가니
26. 구름은 물론이고 안개는 무슨 일가.
27. 산천이 어두운데 일월(日月)을 어찌 보며
28. 지척(咫尺)을 모르는데 천리를 바라보라.
29. 차라리 물가에 가 **뱃길**이나 보려 하니
30.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수선히 되었구나.
31.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걸렸는가.
32. 강천(江天)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33. 님다히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34. 모점(茅簷)<sup>2)</sup> 찬 자리에 밤중쯤 돌아오니
35. 반벽(半壁) 청등(靑燈)은 누굴 위해 밝았는가.
36.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바장이니,
37. 잠시 동안 역진(力盡)하여 풋잠을 잠깐 드니
38. 정성이 지극하여 **꽃**에 님을 보니

39. 옥(玉) 같은 몸이 반이나마 늙으셨네.
40. 마음에 먹은 말씀 실컷 사뢰려니,
41. 눈물이 쏟아지니 말씀인들 어찌하며,
42. 정(情)을 못 다 하여 목조차 메이는데
43. 방정맞은 닭소리에 잠은 어찌 깨었던가.
44. 아아 허사(虛事)로다 이 님이 어디 간고.
45. 잠결에 일어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46. 가엾은 그림자가 날 따를 뿐이로다.
47. 차라리 죽어져서 **낙월(落月)**이나 되어서
48. 님 계신 창 안에 번드시 비추리라.

- 정철, <속미인곡(續美人曲)>

1) 님다히 : 임 계신 곳.

2) 모점 : 초가집.

4. (가)~(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시적 화자의 태도로 적절한 것은?

- ① 자신과 대상과의 관계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 ② 이별의 상황에서 재회의 희망을 표현하고 있다.
- ③ 자신이 처한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 ④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으로 안타까워하고 있다.
- ⑤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 운명을 떠올리며 슬퍼하고 있다.

★★★★★

5. (가)와 (다)의 밑줄 친 시어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봉우리’와 (다)의 ‘높은 피’는 탈속적 공간이다.
- ② (가)의 ‘꿈’과 (다)의 ‘꿈’은 소망의 간절함을 담고 있다.
- ③ (가)의 ‘달빛’과 (다)의 ‘낙월’은 화자의 심정이 투영된 사물이다.
- ④ (가)의 ‘바람’과 (다)의 ‘바람’은 화자의 내면과 관련이 있다.
- ⑤ (가)의 ‘길’과 (다)의 ‘벉길’은 소망을 성취할 수 있는 통로이다.

## 누항사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806월 평가원]

(가)

제비 한 마리 처음 날아와  
지지배배 ㉠ **그 소리** 그치지 않네  
말하는 뜻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  
느릅나무 뽕나무 목어 구멍 많은데  
어찌하여 그곳에 깃들지 않니  
제비 다시 지저귀며  
사람에게 말하는 듯  
느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쪼고  
뽕나무 구멍은 뱀이 와서 뒤진다오

- 정약용, <고시(古詩)>

(나)

북창(北窓)에 기대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오디새는 이 내 한을 돕는다  
아침까지 울적하여 ㉡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農歌)도 흥 없이 들린다  
세정(世情)<sup>1)</sup>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른다  
술 고기 있으면 친구도 사귀련만  
두 주먹 비게 쥐고 물정 모르는 말에 모습도 못 고우니  
하루아침 부릴 소도 못 빌려 말았거든  
하물며 교외(郊外)에서 취(醉)할 뜻을 갖을쏘나  
아까운 저 쟁기는 벗보임도 좋을시고  
가시 영킨 목은 밭도 쉽사리 갈련만은

㉢ **텅 빈 집 벽에 쓸 데 없이 걸렸구나**

차라리 첫 봄에 팔아나 버릴 것을  
이제야 팔려 한들 알 이 있어 사러오라  
봄같이도 끝나간다 후리 쳐 던져두자  
강호 한 꿈을 꾸지도 오래려니

㉣ **입과 배가 누가 되어** 어즈버 잊었도다

저 물을 바라보니 푸른 대도 하도할샤

㉤ **홀륭한 군자들이 낡대 하나 빌려스라**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청풍 벗이 되어

㉥ **임자 없는 중월강산에 절로절로 늪으리라**

- 박인로, <누항사>

(다) 나는 전에 관동 지방에 유람을 간 일이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강 너머 물가를 바라보니 인가가 물가의 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고, 단풍나무와 떡갈나무가 서 있는데, 그 사이로 초가지붕이 보이고, 아침 햇살이 비쳐드니 서리 내린 나뭇잎이 노랗기도 하고 붉기도 하였습니다. 뽕나무를 실은 작은 배와 소금 실은 조각배가 서로 바라보며 오가고, 채소밭과 논두렁이 보였다가 사라졌다 하더군요. 또한 지팡이를 짚고 밭두둑에 멈추어 서 있는 사람,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쓰는 사람, 어린애를 데리고 동이를 머리에 이고 있는 사람, 나란히 쟁기를 끄는 사람도 있었으며, 닭과 개가 여기저기 나타나고 밥 짓는 연기가 간간이 일어났지요. 자신도 모르게 정신이 내달리고 흥취가 일어나 ‘훗날 식구들을 데리고 멀리 떠나오면 근심을 잊고 노년을 마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지요. 돌아오자마자 서둘러 이 이야기를 내 친구인 포원자에게 하였던니, 포원자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곳은 내가 예전에 몸소 가 보았던 곳이라네. 내가 거기에 가 보니, 마을 앞에는 메마른 자갈밭만 보이고 채소의 싹도 듬성듬성하게만 돌아나 있고 집은 낮은데다가 비좁아 구부정하게 몸을 구부려야 했었네. 마을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네. ‘여름에 장마가 저 강물이 불어나면 전답이 어김없이 물바다가 되어 한 해 동안 애써 농사지은 작물을 서쪽 물결에 보내 버리게 됩니다. 오래도록 가뭄이 계속되면 자갈 땅이 후끈 달아올라 온갖 곡식이 바싹 말라 버린답니다. 오직 비와 햇볕이 때에 맞고 들관과 습지의 곡식이 모두 잘 익어야 우리 마을에서는 느긋하게 숨을 내쉬며 근심이 없을 수 있지요.’ 그곳에서 하룻밤을 머물렀는데, 아침과 낮에는 그러저럭 지낼 만하였지만, 어스름이 내린 뒤에는 문을 나가면 호랑이에게 물려가기 때문에 문에 들어서자마자 곧장 호랑이 그물을 친다네. 빗장을 걸어 잠그지 않은 집이 없었고, 이가 없는 집이 없었네. 가려운 데를 긁어대느라 부스럼이 되었고, 밤새도록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였지. 그때는 정말이지 미친 듯 고통을 지르고 싶었네. 앞서 말한 뽕나무와 소금 실은 작은 배, 채소밭과 논둑을 몽땅 다 나에게 주면서 하룻밤을 더 머물라고 부탁해도 나는 머리를 내저으며 서둘러 도망갔을 걸세.”

㉦ **이 말**은 시골 생활의 괴로움을 깊이 생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실로 먼 곳과 가까운 곳의 차이에 대해 알 수 있게 했습니다.

- 이학규, <어떤 사람에게[與某人]>

[28%]

6.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실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담겨 있다.
- ② 불만족스러운 삶의 현실이 내재되어 있다.
- ③ 일상생활의 소중함에 대한 자각이 나타나 있다.
- ④ 현실과의 단절로 인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 ⑤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반성하면서 개선하고자 한다.

[42%]

7.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대비적 관계에 있는 시어를 배치하고 있다.
- ② (나)는 공간의 이동 경로에 따라 사물의 다양한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풍자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설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나)는 (가)에 비해 화자의 내면이 잘 드러나는 어조를 취하고 있다.

[45%]

★★★★★

8. <보기>를 참조하여 (나)의 ㉠~㉣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사대부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삶은 세상에 나아가 태평성대를 구현하는 데 힘을 보태는 것이었으며, 이것을 자신들의 직분이라고 생각했다. 박인로도 이와 같은 삶을 지향했으며 사대부의 직분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럴 만한 지위를 얻지 못했다. 그렇다고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추종하며 살 수도 없었기에 세상에서 점점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갈등하다가 그가 선택하게 된 또 하나의 가치가 ‘안빈낙도(安貧樂道)’이다. 즉 안빈낙도는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사대부로서의 고결한 내면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삶의 양식이었던 것이다.

- ① ㉠은 화자와 세상과의 심리적 거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은 사대부로서의 직분을 현실에서 실천할 수 없는 화자의 안타까운 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은 화자가 선비로서의 고결한 삶을 살 수 없었던 이유로 볼 수 있겠군.
- ④ ㉣은 권력욕에 빠진 위정자들에 대한 비판을 보여 주는군.
- ⑤ ㉤은 안빈낙도하며 살아가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어부단가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909월 평가원]

[가]

차디찬 아침 이슬  
진준가<sup>1)</sup> 빛나는 못가  
연꽃 하나 다복히 피고

소년아 네가 났다니  
맑은 냇에 깃들여  
박꽃처럼 자랐어라

큰강 목놓아 흘러  
여울은 흰 돌쪽마다  
소리 석양(夕陽)을 새기고

너는 준마 달리며  
죽도(竹刀) 저 곧은 기운을  
목숨같이 사랑했거늘

거리를 쫓아다니도  
분수(噴水) 있는 풍경 속에  
동상답게 서 봐도 좋다

서풍(西風) 뺨을 스치고  
하늘 한가<sup>2)</sup> 구름 뜨는 곳  
회고 푸른 즈음을 노래하며

노래 가락은 흔들리고  
별들 춤다 얼어붙고  
너조차 미친들 어찌라

- 이육사, <소년에게>

- 1) 진준가 : 진주인가.  
2) 한가 : 가장 끝 부분.

[나]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 13도  
영하 이십도 지상으로  
온몸을 뿌리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의 나목(裸木)으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별 받는 자세로 서서  
아 별 받은 몸으로, 별 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그러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온 혼(魂)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 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십삼도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온몸이 으스스하도록  
으스스하도록 부르터지면서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아아, 마침내, 끝끝내  
꽃 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 피는 나무이다.

- 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다]

이 중에 시름 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로다  
일엽편주(一葉片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알라.

<제1수>

굽어보면 천심(千尋)녹수(綠水) ㉔ **돌아보니** 만첩(萬疊)청산(靑山)

십장(十丈) 홍진(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고  
강호(江湖)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제2수>

청하(靑荷)<sup>1)</sup>에 밥을 싸고 녹류(綠柳)에 고기 꿰어  
노적(蘆荻) 화총(花叢)<sup>2)</sup>에 배 매어 두고  
일반(一般) 청의미(淸意味)<sup>3)</sup>를 어느 분이 아실까.

<제3수>

산두(山頭)에 한운(閑雲) 일고 수중에 백구(白鷗)난다  
무심(無心)코 다정한 이 이 두 것이로다  
일생에 시름을 잊고 너를 좇아 놀리라

<제4수>

장안(長安)을 ㉕ **돌아보니** 북궐(北闕)이 천리(千里)로다  
어주(漁舟)에 누어신들 잊은 때가 있으랴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재세현(濟世賢)<sup>4)</sup>이 없으랴.

<제5수>

- 이현보, <어부단가>

- 1) 청하 : 푸른 연잎.  
2) 노적 화총 : 갈대와 물억새의 덩불.  
3) 일반 청의미 : 자연이 주는 찬된 의미.  
4) 재세현 : 세상을 구제할 현명한 선비.

[33%]

9.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
- ②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자연물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③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 세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사물의 속성을 인간의 삶과 대비해 가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구도적인 자세를 통해 사물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있다.

[44%]

10. [가]와 [다]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다]에 비해 청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진다.
- ② [다]는 [가]에 비해 음악적 리듬감이 두드러진다.
- ③ [다]는 [가]와 달리 대구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 ④ [다]는 [가]와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
- ⑤ [가]와 [다] 모두 영탄의 어조로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

[26%]

★★★★★

11. ㉠과 ㉡를 중심으로 [다]를 <보기>와 같이 정리하여 감상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대상	대상의 심상	화자의 태도
㉠돌아보니	청산	월백	더욱 무심하여라
㉡돌아보니	장안	홍진	잇은 때가 있으랴

- ① ‘만첩’은 ㉠과 ㉡의 대상 간의 단절을 강조하는 시어이다.
- ② ‘월백’은 ‘홍진’과 대비되어 강호 공간의 청정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부각한다.
- ③ ㉠은 ‘더욱 무심하여라와 연결되어 강호 공간에서 화자가 추구하려는 자기 절제의 내면세계를 드러낸다.
- ④ ㉡는 ‘잇은 때가 있으랴와 연결되어 강호 공간에서도 버릴 수 없었던 정치적 이상에 대한 미련을 드러낸다.
- ⑤ ㉠과 ㉡에서 심리적 갈등을 겪던 화자가 선택한 최종적인 삶의 방향은 ㉡의 대상이다.

## 어부단가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406월 평가원]

(가)

이 중에 시름 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로다  
일엽편주(一葉片舟)를 만경파(萬頃波)<sup>1)</sup>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알라.

<제1수>

굽어보면 천십(千尋) 녹수(綠水) 돌아보면 만첩(萬疊) 청산(靑山)

십장(十丈) 홍진(紅塵)<sup>2)</sup>이 얼마나 가렸는고  
강호(江湖)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제2수>

장안(長安)을 돌아보니 북궐(北闕)이 천리(千里)로다  
어주(漁舟)에 누어신들 잊은 때가 있으랴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sup>3)</sup>이 없으랴

<제5수>

- 이현보, <어부단가>

- 1) 만경파(萬頃波) : 넓은 바다 물결.
- 2) 홍진(紅塵) : 번거롭고 속된 세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3) 제세현(濟世賢) : 세상을 구제할 현명한 인재.

(나)

내 가슴에 독(毒)을 찬 지 오래로다  
아직 아무도 해(害)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흠어버리라 한다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할지 모른다 위협하고

독 안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 나 마주 가버리면  
억만세대(億萬世代)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지라져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한디!' 독은 차서 무엇하느냐고?

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앓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디!' 허나  
앞뒤로 덤비는 이리 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매  
내 산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퀴우라 내말긴 신세  
임을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막음 날 내 외로운 혼(魂) 건지기 위하여  
- 김영랑, <독(毒)을 차고>

(다)

지상(地上)에는  
아홉 켤레의 신발.  
아니 현관에는 아니 들간에는  
아니 어느 시인의 가정에는  
알 전등이 켜질 무렵을  
문수(文數)가 다른 아홉 켤레의 신발을.  
내 신발은  
십구문반(十九文半).  
눈과 얼음의 길을 걸어,  
그들 옆에 벗으면  
육문삼(六文三)의 코가 납작한  
귀염둥아 귀염둥아  
우리 막내둥아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얼음과 눈으로 벽(壁)을 짜올린  
여기는  
지상.  
연민한 삶의 길이어.  
내 신발은 십구문반(十九文半).

아랫목에 모인  
아홉 마리의 강아지야  
강아지 같은 것들아.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  
내가 왔다.  
아버지가 왔다.  
아니 십구문반(十九文半)의 신발이 왔다.  
아니 지상에는  
아버지라는 어설픈 것이  
존재한다.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 박목월, <가정(家庭)>

[45%]

12. (가)~(다)의 공통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 ① 그리움의 정서가 들어 있다.
- ②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보인다.
- ③ 시적 화자가 대상을 관조하고 있다.
- ④ 시적 화자의 내적 갈등을 보여 준다.
- ⑤ 대상에 대한 비판적 어조가 나타나 있다.

★★★

[36%]

13. (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공간의 대비가 드러나 있다.
- ② 어부의 생활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 ③ 마지막 연에서 복잡한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속세와의 거리감을 수(數)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⑤ 마지막 구의 ‘제세현(濟世賢)’에서 현실 정치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다.

★★★★★

[33%]

14. (가)와 <보기>의 작가가 만나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가정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어와 저물어 간다 연식(宴息)\*이 마땅도다  
 배 붙여라 배 붙여라  
 가는 눈 뿌린 길 붉은 꽃 흩어진 데 흥(興)치며 걸어가  
 서  
 지국총(至菊叢) 지국총(至菊叢) 어사와(於思臥)  
 설월(雪月)이 서봉(西峰)에 넘도록 송창(松窓)을 비껴  
 있자.

- 윤선도, <어부사시사>

\* 연식(宴息): 평안정에 쉬.

- ① 윤선도: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시를 보면 푸른 색, 흰색 등의 시각적 이미지가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 ② 이현보: 윤 선생님의 시에도 흰색과 붉은색의 색채 대비가 분명하던데, 제가 잘못 읽었나요?
- ③ 윤선도: 저는 이 선생님처럼 어부를 등장시키고, 대조를 통해 이상과 현실을 나누어 보려 했지요.
- ④ 이현보: 윤 선생님은 흥(興)이라는 정서를 끌어냈는데, 저는 아직도 무심(無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⑤ 윤선도: 이 선생님의 시에 나타나는 ‘없으니’, ‘잇었거니’, ‘더욱’, ‘없으랴’ 등의 시어에서 그런 마음을 엿볼 수 있군요.

## 추강(秋江)에 밤이 드니~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608월 교육청]

[가]

추강(秋江)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낚시 들이치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무심(無心)한 ㉠ **달**빛만 신고 빈 배 저어 오노라  
 - 월산대군

[나]

오동야우(梧桐夜雨) 성긴 비에 밤은 어이 더디 가고  
 녹양방초(綠楊芳草) 저문 날에 해는 어이 수이 가노  
 이내 상사(相思) 아르시면 임도 나를 그리리라  
 적적심야(寂寂深夜) 혼자 안자 다만 한숨 내 벗이라  
 일촌간장(一村肝腸) 구비 썩어 피어나니 가슴 답답  
 우는 눈물 받아내면 배도 타고 아니 가라  
 피는 불이 일어나면 임의 옷에 당기리라  
 사랑 계워 우던 울음 생각하니 목이 메고  
 교태 계워 웃던 웃음 해아리니 더욱 싫다  
 지척동서(咫尺東西) 천 리 되어 바라보니 눈물이고  
 만첩상사(萬疊相思) 그려낸들 한 붓으로 다그리라  
**날개 든친 학이 되어 날아가다** 아니 가라  
 산은 어이 고개 있고 물은 어이 사이 진고  
 천지 인간 이별 중에 **나 같은 이 또 있는가**  
 이슬 같은 이 인생이 무슨 일로 생겨난고  
 바람 불어 굶은 비와 구름 끼어 저문 날에  
 나며들며 빈 방으로 **오락가락 혼자 서서**  
**기다리고 바라보니** 이내 상사허사(相思虛事)로다  
 공방미인(空房美人) 독상사(獨相事)<sup>1)</sup>는 예로부터 이러한

가

나 혼자 이러한가 남도 아니 이러한가  
**날 사랑하던 끝에 남 사랑하시는가**  
**만첩청산(萬疊靑山) 들어간들** 어느 낭군 날 찾으리  
 산은 첩첩(疊疊) 고개 되고 물은 충충 소(沼)이로다  
 오동추야(梧桐秋夜) 밝은 ㉡ **달**에 임 생각이 새로워라  
 무정(無情)하여 그러한가 유정(有情)하여 이러한가  
 산계야목(山鷄夜鶩)<sup>2)</sup> 길을 들여 놓을 줄을 모르는가  
 노류장화(路柳牆花)<sup>3)</sup> 꺾어 쥐고 춘색(春色)으로 다니는가  
 가는 꿈이 자취 되면 오는 길이 무디리라  
 한 번 죽어 돌아가면 다시 보기 어려우니  
 아마도 옛 정(情)이 있거든 다시 보게 삼기소서  
 - 작자 미상, <상사별곡(相思別曲)>

1) 독상사(獨相事) : 홀로 그리워하는 마음.

2) 산계야목(山鷄夜鶩) : 성질이 사납고 거칠어 제 마음대로만 하며 다잡을 수 없는 사람.

3) 노류장화(路柳牆花) : 아무나 쉽게 꺾을 수 있는 길가의 버들이나 담 밑의 꽃.

### 15.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상황을 가정하여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어순을 도치하여 대상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④ 공간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시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 16.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화자가 과거를 회상하는 동기를 제공한다.
- ② ㉠과 ㉡은 모두 화자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
- ③ ㉠은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보여주고, ㉡은 화자의 정서를 유발한다.
- ④ ㉠은 화자를 세속적 세계와 연결시키고, ㉡은 화자를 세속적 세계와 단절시킨다.
- ⑤ ㉠은 화자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고, ㉡은 화자에게 삶의 이치를 깨닫게 해 준다.

## 만흥(漫興)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609월 평가원]

[가]

향단(香丹)아 ㉠ **그넷줄**을 밀어라  
머언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베갯모에 놓이듯한 ㉡ **풀꽃더미**로부터,  
자잘한 나비 새끼 꼬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 **산호(珊瑚)**도 섬도 없는 저 ㉣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채색(彩色)한 ㉤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 다오!

서(西)으로 가는 달 같이는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 다오  
향단아.

- 서정주, <추천사>

[나]

저 청청한 하늘  
저 흰 구름 저 눈부신 산맥  
왜 날 울리나  
㉦ **날으는** 새여  
뉘인 이 가슴

밤새워 물어뜯어도  
닿지 않는 밀바닥 마지막 살의 그리움이여  
피만이 흐르네  
더운 여름날의 썩은 피

땅을 기는 육신이 너를 우러러  
낮이면 낮 그여 한번은  
울 줄 아는 이 서러운 눈도 아예  
시뻘건 몸뚱어리 몸부림 함께  
함께 답새라  
아 끝없이 새하얀 사슬 소리여 새여  
죽어 너 되는 날의 길고 아득함이여

㉧ **낮이 밝을수록 침침해가는**

녘 속의 저 짧은

여위어가는 저 짧은 별발을 스쳐  
떠나가는 새

청청한 하늘 끝  
푸르른 저 산맥 너머 떠나가는 새  
왜 날 울리나  
덧없는 가없는 저 눈부신 구름  
아아 뉘인 이 가슴

- 김지하, <새>

[다]

산수간(山水間) 바위 아래 **떠짚**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 **어리고 하얗<sup>1)</sup>의 뜻에는 내 분(分)인가 하노라**

<제1수>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슬카지 노니노라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렬<sup>2)</sup> 줄이 있으랴

<제2수>

잔 들고 혼자 앉아 **먼 피**를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하랴  
말씀도 웃음도 아녀도 못내 좋아 하노라

<제3수>

누고서 삼공(三公)<sup>3)</sup>도곤 낫다 하더니 ㉩ **만승(萬乘)<sup>4)</sup>이 이  
만하랴**

이제로 헤어든 소부 허유(巢父許由)<sup>5)</sup>가 약뎛더라<sup>6)</sup>  
아마도 임천 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없어라

<제4수>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알으실사  
인간 만사(人間萬事)를 한 일도 아니 맡겨  
다만당 **다들 이 없는 강산(江山)**을 지키라 하시도다

<제5수>

강산이 좋다 한들 ㉪ **내 분(分)으로 누었느냐**

임금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갓고자 하여도 하울 일이 없어라

<제6수>

- 윤선도, <만흥(漫興)>

- 1) 하얗 : 시골에 사는 건문이 좁고 어리석은 사람.
- 2) 부렬 : 부러워할.
- 3) 삼공 : 삼 정승.
- 4) 만승 : 천자(天子).
- 5) 소부 허유 : 요임금 때 세상을 등지고 살던 인물.
- 6) 약뎛더라 : 약았더라.

[18%]

17.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시간의 경과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④ [가], [나], [다]는 자연과 인간을 대립시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⑤ [가], [나], [다]는 단정적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20%]

19. ㉠~㉤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은 어법에 어긋나지만 리듬감을 살리는 효과가 있다.
- ② ㉡은 역설적 표현으로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은 반어적 표현을 통해 자조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과장된 표현을 통해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은 설의적 표현으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19%]

18. <보기>를 참고할 때, ㉠~㉤ 중에서 [다]의 '띠집'과 가장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은? [1점]

<보기>

윤선도는 '띠집' 을 짓고 나서 문집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이 집이 나로 하여금 표연히 세상을 버리고 홀로 신선이 되어 날아가는 뜻을 지니게 하면서도, 끝내는 나로 하여금 부자(父子)와 군신(君臣)의 윤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 만흥(漫興)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403월 교육청]

[가]

제비는 물을 차고, 기러기 무리져서 거지 중천(居之中天)에 높이 떠서 두 나래 훨훨 펴고, 펄펄펄 백운 간(白雲間)에 높이 떠서 천리 강산 머나먼 길을 어이 같꼬 슬피 운다.

원산(遠山)은 첩첩(疊疊), 태산(泰山)은 주춤하여, 기암(奇巖)은 층층(層層), 장송(長松)은 낙락(落落), 에이구부러져 광풍(狂風)에 흥을 겨워 우줄우줄 춤을 춘다.

층암 절벽상(層巖絶壁上)의 폭포수(瀑布水)는 괘괘, 수정림(水晶簾) 드리운 듯, 이 골 물이 주루룩, 저 골 물이 쉼쉼, 열에 열 골 물이 한데 합수(合水)하여 천방저 지방저 소쿠라지고 평퍼져, 넉출지고 방울져, 저 건너 병풍석(屏風石)으로 으르렁 괘괘 흐르는 물결이 은옥(銀玉)같이 흘러지니, 소부 허유(巢父許由) 문답하던 기산 영수(箕山潁水)<sup>1)</sup>가 예아니냐.

- 작자 미상, <유산가(遊山歌)>

1) 기산 영수(箕山潁水) : 중국 요임금 때 소부와 허유가名利(名利)를 피하여 은거한 곳.

[나]

산수간(山水間) 바위 아래 떠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어리고 하얌<sup>1)</sup>의 뜻에는 내 분(分)인가 하노라 <제1수>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後)에  
바위 끝 물가에 슬카지 노니노라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럴<sup>2)</sup> 줄이 있으라 <제2수>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알으실사  
인간 만사(人間萬事)를 한 일도 아니 맡겨  
다만당 다투 이 없는 강산(江山)을 지키라 하시도다 <제5수>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分)으로 누었느냐  
임금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값고자 하여도 하울 일이 없어라 <제6수>

- 윤선도, <만흥(漫興)>

1) 하얌 : 시골에 사는 건물이 좁고 어리석은 사람.

2) 부럴 : 부러워할.

[A:17%][B:13%]

20.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자연물을 매개로 자아를 성찰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순차적인 계절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낭만적인 분위기를, [나]는 애상적인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자연에서 비롯된 화자의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관조적인 자세로 대상의 의미를 탐구하고 있다.

[A:27%][B:23%]

★★★  
21. <보기>의 관점에서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삼가 생각하건대 선비의 처세는 나아감에 있어 떳떳하지 못해도 진정 아니 될 것이며 물러남에 있어 떳떳하지 못해도 진정 아니 될 것입니다. 나아감엔 마땅히 이익을 탐한 것이 아닌가 경계해야 할 것이며 물러남엔 마땅히 세상을 잊은 것이 아닌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 ① ‘알맞게 먹’ 고 ‘슬카지 노니’ 는 것은, 물러난 ‘나’ 가 선택한 삶의 방식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그 남은 여남은 일’ 은 이익을 탐하는 것으로 ‘나’ 가 경계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③ ‘성이 게으르’ 다는 것은 물러남에 있어 떳떳하지 못한 ‘나’ 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④ ‘나’ 는 물러남으로 인해 ‘다툼 이’ 와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
- ⑤ ‘임금 은혜’ 를 ‘갚고자’ 하는 태도는, ‘나’ 가 세상을 잊은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오우가(五友歌)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5년 수능]

(가) ㉠ **나무에 아주 친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달이 있고, ㉡ **바람**이 있고, 새가 있다. 달은 때를 어기지 아니하고 찾고, 고독한 여름 밤을 같이 지내고 가는, 의리 있고 다정한 친구다. 웃을 뿐 말이 없으나, 이심전심(以心傳心) 의사(意思)가 잘 소통되고 아주 비위에 맞는 친구다.

바람은 달과 달라 아주 ㉢ **변덕 많고** 수다스럽고 믿지 못할 친구다. 그야말로 바람장이 친구다. 자기 마음 내키는 때 찾아올 뿐 아니라, 어떤 때에는 쏘삭쏘삭 알랑거리고, 어떤 때에는 난데없이 휘갈기고, 또 어떤 때에는 공연히 뒤틀려 우악스럽게 남의 팔다리에 생채기를 내 놓고 달아난다. 새 역시 바람같이 믿지 못할 친구다. 자기 마음 내키는 때 찾아오고, 자기 마음 내키는 때 달아난다. 그러나 가다 밟고 와 등지를 틀고, 지켰을 때 찾아와 쉬며 푸념하는 것이 귀엽다. 그리고 가다 흥겨워 노래할 때, 노래 들을 수 있는 것이 또한 기쁨이 되지 아니할 수 없다. 나무는 이 모든 것을 잘 가릴 줄 안다. 그러나 좋은 친구라 하여 달만 반기고, 믿지 못할 친구라 하여 새와 바람을 물리치는 일이 없다. 그리고 달을 유달리 후대(厚待)하고 새와 바람을 박대(薄待)하는 일도 없다. 달은 달대로, 새는 새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다 같이 친구로 대한다. 그리고 친구가 오면 다행하게 생각하고, 오지 않는다고 하여 불행해 하는 법이 없다.

같은 나무, 이웃 나무가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은 두말할 것 없다. 나무는 서로 속속들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동정하고 공감한다. 서로 마주보기만 해도 기쁘고, 일생을 이웃하여 살아도 싫증나지 않는 참다운 친구다.

그러나 나무는 친구끼리 서로 즐긴다느니보다는, 제각기 하늘이 준 힘을 다하여 널리 가지를 펴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데 더 힘을 쓴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고 묵도(默禱)하는 것으로 일삼는다. 그러기에 나무는 언제나 하늘을 향하며, 손을 쳐들고 있다. 온갖 나뭇잎이 우거진 숲을 찾는 사람이 거룩한 전당에 들어선 것처럼 엄숙(嚴肅)하고 경건(敬虔)한 마음으로 절로 옷깃을 여미고, 우렁찬 찬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이유(理由)도 여기 있다.

— 이양하(李暎河)의 「나무」에서

(나)

내 버디 몇치나 하니 수석(水石)과 송죽(松竹)이라.  
동산(東山)의 들 오르니 괴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솜 빛기 또 더하야 머엇하리.

구름빛치 조타 하니 검기를 즈로 혼다.

㉣ **바람** 소리 몰다 하니 그칠 적이 하노매라.

조코도 그칠 뉘 업기는 물뿐인가 흐노라.

고즌 므스 일로 뛰며서 쉬이 디고,  
플은 어이하야 프로논 듯 누르느니.  
아마도 변티 아닐슨 바회뿐인가 흐노라.

더우면 곳 뛰고 치우면 뉘 디거늘,  
술아, 너는 언디 눈서리를 모르느다.  
구천(九泉)의 불회 고든 줄을 글로 하야 아노라.

나모도 아닌 거시 플로 아닌 거시  
곳기는 뉘 시기며 속은 어이 뷘연느다.  
더러코 사시(四時)에 프르니 그를 도하흐노라.

작은 거시 노피 떠서 만물(萬物)을 다 비취니,  
밤등의 광명(光明)이 너만흐니 또 잇느냐.  
보고도 말 아니 흐니 내 벌인가 흐노라.

- 윤선도(尹善道), <오우가(五友歌)>

(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일새에 이는 ㉤ **바람**에도

㉥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 윤동주(尹東株), <서시>

(라)

내 죽으면 한 개 바위가 되리라.

아예 애련(愛憐)에 물들지 않고

희로(喜怒)에 움직이지 않고

비와 ㉦ **바람**에 깎이는 대로

억년(億年) 비정(非情)의 함묵(緘默)에

안으로 안으로만 채찍질하여

드디어 생명도 망각하고

흐르는 구름

머언 원뢰(遠雷)

꿈 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두 쪽으로 깨뜨려져도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 유치환(柳致環), <바위>

★★★

22. (가)~(라)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을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② 수동적인 삶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 ③ 과거를 통해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 ④ 현실을 도피하고 이상을 추구하고 있다.
- ⑤ 자연물을 통해 지은이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23. ㉠의 의미와 거리가 먼 것을 (나)에서 찾으려면?

- ① 구름빛치 조타 흐나 검기를 즈로 혼다
- ② 바람 소리 몹다 흐나 그칠 적이 하노매라
- ③ 고즌 므스 일로 꿰며서 쉬이 디고
- ④ 풀은 어이흐야 프로논 듯 누르느니
- ⑤ 나모도 아닌 거시 풀도 아닌 거시

★★★

24. ㉠~㉤ 중, 함축적 의미가 유사한 것끼리 묶은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상춘곡(賞春曲)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709월 평가원]

(가)

31. 송간(松間) 세로(細路)에 ㉠ **두견화(杜鵑花)**를 부치들고,
32. 봉두(峯頭)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 보니,
33. 천촌만락(千村萬落)이 곳곳에 펼쳐져 있네.
34. 연하일휘(煙霞日輝)는 금수(錦繡)를 펴 놓은 듯,
35.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유여(有餘)할사.
- 36.功名(功名)도 날 꺼리고 부귀(富貴)도 날 꺼리니,
37. 청풍명월(淸風明月) 외에 어떤 벗이 있사올꼬.
38. 단표누항(簞瓢陋巷)에 헛된 생각 아니 하네.
39. 아모타 백년행락(百年行樂)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 정극인, 「상춘곡(賞春曲)」

(나)

헛된 이름 따라 허덕허덕 바빠 다니지 않고,  
 평생 물과 구름 가득한 마을을 찾아다녔네.  
 따스한 봄 잔잔한 호수엔 안개가 천 리에 끼었고,  
 맑은 가을날 옛 기슭엔 달이 배 한 척 비추네.  
 서울 길의 붉은 먼지 꿈에서도 바라지 않고,  
 초록 도롱이 푸른 샷갓과 함께 살아간다네.  
 여기여차 노랫소리는 뱃사람의 흥취이니,  
 세상에 옥당(玉堂)<sup>1)</sup> 있다고 어찌 부러워하리오.

- 설장수, 「어옹(漁翁)」

1) 옥당 : 문장 관련 업무를 담당한 관청의 별칭.

(다) 나는 성품이 또한 게을러 일찍이 동산을 가꾸지 않았고, 화훼(花卉)에 관심이 없었다. 동쪽 정원에 단지 복숭아나무 한 그루와 잣목 한 그루가 있을 뿐이다. 모두 심지 않았는데도 싹이 트고, 물을 주지 않았는데도 자랐으며, 호미질하지 않았는데도 무성하게 된 것들이다. 바야흐로 춘삼월에 복숭아꽃이 막 피어났는데, 꽃잎이 곱고 꽃부리가 연약하며 꽃술이 향기로웠다. 금으로 둥글리고 옥으로 깎은 듯, 분칠을 열게 하고 연지를 질게 찍은 듯하였다. 잣목은 그 곁에 서 있는데, 가지나 잎도 볼 만한 것이 없고 꽃도 피지 않았다. 그저 이름도 모르는 나무일 뿐이기에 잣목이라고 불렀다.

하루는 중 녀석이 화원에 가서 한참 바라보더니 복숭아나무로 다가가 어루만지면서 주위를 서성였다. 다시 물을 주고 흙을 복돋아 주고서 떠났는데, 잣목은 거들떠보지 않았다.

내가 그 이유를 물으니 대답했다.

“지금 복숭아나무가 잎이 막 싹을 틔우고 꽃이 또 봉오리를 맺으니, 그 열매가 익기를 기다리면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나무는 사람에게 정말 사랑스러운 데다가

장차 이익까지 주게 됩니다. 저 잣목은 꽃도 잎도 볼 것

이 없고, 과실도 먹을 것이 없는 데다가, 그 뿌리가 굳세고 가지가 큼니다. 뿌리가 길게 뻗으면 지맥을 막아 복숭아나무

가 번식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크면 햇볕을 가로막고 방해하여 양기(陽氣)를 소모하게 되니 복숭아나무가 번창하여 무성할 수가 없습니다. 배임을 당하지 않는 것도 다행인데, 우리가 지켜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말했다.

“그래, 그렇군. 하지만 아니야, 아니야. 너는 큰 도리를 듣지 못했느냐? 하늘의 도(道)는 만물에 두루 은혜를 베풀어서 비와 이슬이 상대를 가리지 않고 내리고, 군자는 남을 두루 사랑하여 다른 사람과 함께 인(仁)의 경지를 이룬단다. 그러므로 태산의 언덕에 ㉡ **소나무, 계수나무**가 가죽나무, 상수리나무와 함께 자라고, 달인(達人)의 문하에 어진 이와 어질지 못한 이가 같이 있게 되지. 복숭아나무와 잣목은 예쁘다는 점과 못생겼다는 점, 특이하다는 점과 평범하다는 점에서 정말로 차이가 있지. 하지만 똑같이 천지의 기를 받아 태어났고, 태어나서 또 마침 나의 동산에 심어져 있구나. 사람이 하나는 보호하고 하나는 버린다면, 잣목으로 태어난 존재가 더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느냐? 나는 내 화원에 있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라도 모두 그 사이에 행(幸)과 불행(不幸)이 있게 하고 싶지 않다. 너는 얼른 가서 가꾸어라.”

- 남공철, 「동원화수기(東園花樹記)」

★★

[29%]

25.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창작의 동기가 되고 있다.
- ② 세속적 이익을 좇지 않는 삶의 자세가 나타나 있다.
- ③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④ 견디기 힘든 현실의 고통을 자연에 의지해 잊고자 한다.
- ⑤ 현재보다 나은 삶을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11%]

26.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주체와 객체가 전도된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인생관을 분명히 하고 있다.
- ② (나)는 색채의 선명한 대조를 통해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③ (가), (나)는 모두 설의적 표현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④ (가), (나)는 모두 정경 묘사와 정서의 표출이 어우러져 있다.
- ⑤ (가)는 (나)에 비해 청각적 심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46%]

27. (나)의 화자가 <보기>의 ㉠이라고 할 때,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강호(江湖)에서 살아가는 어부를 소재로 한 작품에서 ‘어부’는 고기잡이를 직업으로 하는 실제 어부, ㉠ **이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은자(隱者)**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 ① 화자는 자연을 교감과 소통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달’에 인격을 부여하여 자연과의 합일을 추구하는 군.
- ② 화자는 고기잡이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가 아니기에 ‘배한 척’은 한가롭고 평화로운 생활을 나타내는 소재라고 볼 수 있겠지.
- ③ 화자는 자신이 긍정하는 삶을 ‘도롱이’ 입고 ‘삿갓’ 쓴 어부로 표상하고 있군.
- ④ 화자는 자신이 원하는 공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뱃사람의 흥취’를 느낄 수 있는 것이겠지.
- ⑤ 화자는 ‘옥당’이라는 공간과 거리를 둠으로써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역설하고 있군.

[17%]

28. ㉡와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은 모두 글쓴이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다.
- ② ㉡, ㉢은 모두 계절적 배경을 알게 해 주는 소재이다.
- ③ ㉡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사물이고, ㉢은 고독을 느끼게 하는 사물이다.
- ④ ㉡는 감흥을 자아내는 자연물, ㉢은 어진 성품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 ⑤ ㉡는 향토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자연물, ㉢은 강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를 의미한다.

## 견회요(遣懷謠)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904월 교육청]

(가)

무너지는 꽃이파리처럼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서른 나문 해야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

한 금 두 금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年輪)

갈매기처럼 꼬리 떨어

산호(珊瑚) 핀 바다 바다에 내려앉은 섬으로 가자

비취빛 하늘 아래 피는 꽃은 맑기도 하리라

무너질 적에는 눈빛 파도에 적시우리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주름 잡히는 연륜(年輪)마저 끊어버리고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 김기림, <연륜(年輪)>

(나)

[A] 차운 물보라가  
이마를 적실 때마다  
나는 소년처럼 울음을 참았다.

길길이 부서지는 파도 사이로

견잡을 수 없이 나의 해로(海路)가 일렁일지라도

나는 홀로이나라,

나는 바다와 더불어 홀로이나라.

일었다간 스러지는 감상(感傷)의 물거품으로

자폭(自暴)의 잔(盞)을 채우던 옛날은

이제 아득히 띄워보내고,

원뿔을 내어맡긴 천인(千仞)<sup>1)</sup>의 깊이 위에

나는 꽃처럼 황홀한 순간을 마련했으니

슬픔이 설사 또한 바다만 하기로

나는 누우치지 않을

나의 하늘을 꿈꾸노라.

- 김종길, <바다에서>

1) 천인 : 천 길이라는 뜻으로, 매우 높거나 깊음을 이르는 말.

(다)

슬프나 즐거오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내 몸의 해을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 밧기 여남은 일이야 분별(分別)할 줄 이시랴.

<제1수>

내 일 망녕된 줄 내라 하여 모랄 손가.

이 마음 어리기도 님 위한 탓이로세.

아모 | 아무리 일러도 임이 헤여 보소서.

<제2수>

추성(秋城) 진호루(鎭胡樓) 밧기 울어 예는 저 시내야.

무음 호리라 주야(晝夜)에 흐르는다.

님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뉘를 모르나다.

<제3수>

피혼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아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제4수>

아버이 그릴 줄을 처음부터 알아마는

님군 향한 뜻도 **하날**이 삼겨시니

진실로 님군을 잊으면 그 불효(不孝)인가 여기노라.

<제5수>

- 윤선도, <견회요(遣懷謠)>

[28%]

29.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 제시되어 있다.
- ②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③ 자신의 삶에 대해 반성하는 화자의 자세가 나타나 있다.
- ④ 화자가 실현시키고자 하는 규범적 가치가 제시되어 있다.
- ⑤ 지향하고자 하는 삶에 대한 화자의 내면세계가 드러나 있다.

[31%]

30. (가)와 (다)의 화자가 대화를 나눈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저는 제 뜻을 충분히 펴지 못했던 지난날의 삶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해요.
- ② (다) : 자신이 한 일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보잘것없는 과거라도 초라하지만은 않을 텐데요.
- ③ (가) : 이유야 어떻든 이제는 지난날에 연연하지 않고 열렬히 살려고 합니다.
- ④ (다) : 그래요. 앞으로 우리 인생이 힘들더라도 지금 품은 뜻은 잃지 맙시다.
- ⑤ (가) : 네. 굳게 살다 보면 당신처럼 삶을 굴곡지게 하는 외부적 조건을 없앨 수 있겠지요.

[66%]

31. [A]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물보라'의 기능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몸
- ② 여남은 일
- ③ 아모
- ④ 추성
- ⑤ 하날

★★★★★

[72%]

32. (다)를 유배지에서 쓴 글이라고 할 때, <보기>와 관련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군신(君臣)의 대의(大義)를 아뢰나이다. 신의 아버지는 저의 상소를 금하려 한즉 국가를 저버릴까 두렵고, 받아들이려 한즉 그 아들이 죽음으로 나가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멍하니 앉았고 묵묵하게 말이 없었습니다. 신이 상소를 올린다는 말을 듣고는 신의 손을 잡고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슬피 목이 메었으니,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성스럽고 자비로운 임금님께서서는 비록 신을 무거운 법에 놓아 주시되 이 때문에 늙은 아버지에게 화(禍)가 미치게 하지 마시면 영원히 천하 후세에 충신 효자들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 (다)의 화자가 유배당한 원인이 된 상소문의 일부 -

- ① 제1수에는 아버지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상소문을 올리게 된 화자의 성품이 나타나 있군.
- ② 제2수에는 무거운 법을 감수하더라도 상소를 올리는 이유가 나타나 있군.
- ③ 제3수에는 유배를 당했어도 임금의 안녕을 기원하는 신하로서의 마음이 드러나 있군.
- ④ 제4수에는 아들을 걱정하던 아버지를 유배지에서 그리워하는 아들의 심정이 드러나 있군.
- ⑤ 제5수에는 충과 효를 모두 중시하는 화자의 생각이 충과 효를 동일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군.

## 사우가(四友歌)(이신의)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5년 11월 2학년 학평]

[가]

바위에 섰는 솔이 늙연(凜然)한<sup>1)</sup> 줄 반가운더  
풍상(風霜)을 겪어도 여위는 줄 전혀 업다  
어찌다 봄 빛을 가져 변할 줄 모르나니

동리(東籬)에<sup>2)</sup> 심은 국화 귀한 줄을 뉘 아나니  
춘광(春光)을 변패하고<sup>3)</sup> 엄상(嚴霜)<sup>4)</sup>이 혼자 피니  
어즈버 청고(淸高)한 내 벗이 다만 넌가 하노라

꽃이 무한호되 매화를 심은 뜻은  
눈 속에 꽃이 띄어 한 빛<sup>5)</sup>인 줄 귀하도다  
하물며 그윽한 향기를 아니 귀(貴)고 어이리

백설이 잦은 날에 대를 보려 창을 여니  
㉠ **온갖 꽃** 간 데 없고 대숲이 푸르려세라  
어찌서 청풍(淸風)을 반겨 흔덕흔덕 하나니

- 이신의, <사우가(四友歌)>

[어휘 풀이] 1) 늙연한 : 위엄 있고 당당한. 2) 동리에 : 동쪽 울타리에. 3) 변패하고 : 번거롭게 가리고, 마다하고. 4) 엄상: 된서리. 5) 한 빛 : 같은 색의 빛.

[나] 나무는 덕을 지녔다.

나무는 주어진 분수에 만족할 줄을 안다. 나무로 태어난 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왜 여기 놓이고 저기 놓이지 않았는가를 말하지 아니한다. 등성이에 서면 햇살이 따사로울까, 골짜기에 내려서면 물이 좋을까 하여, 새로운 자리를 엿보는 일도 없다. 물과 흙과 태양의 아들로, 물과 흙과 태양이 주는 대로 받고, 득박<sup>1)</sup>과 불만족을 말하지 아니한다. 이웃 친구의 처지에 눈 떠 보는 일도 없다.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스스로 족하고, 진달래는 진달래대로 스스로 족하다.

나무는 고독하다. 나무는 모든 고독을 안다. 안개에 잠긴 아침의 고독을 알고, 구름에 덮인 저녁의 고독을 안다. 부슬비 내리는 가을 저녁의 고독도 알고, 함박눈 펄펄 날리는 겨울 아침의 고독도 안다. 나무는 파리 움쭙 앉는 한여름 대낮의 고독도 알고, 별 열고 돌 우는 동짓날 한밤의 고독도 안다. 그러면서도 나무는 어디까지든지 고독에 견디고, 고독을 이기고, 고독을 즐긴다.

나무에 아주 친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달이 있고, 바람이 있고, 새가 있다. 달은 때를 여기지 아니하고 찾고, 고독한 여름 밤을 같이 지내고 가는, 의리 있고 다정한 친구다. 웃을 뿐 말이 없으나, 이심전심 의사가 잘 소통되고 아주 비위에 맞는 친구다.

바람은 달과 달라 아주 변덕 많고 수다스럽고 믿지 못할 친구다. 그야말로 바람장이 친구다. 자기 마음 내키는 때 찾아올 뿐 아니라, 어떤 때는 쏘삭쏘삭 알랑거리고, 어떤 때에는 난데없이 휘갈기고, 또 어떤 때에는 공연히 뒤틀려 우악스럽게 남의 팔자리에 생채기를 내놓고 달아난다. 새 역시 바람같이 믿지 못할 친구다. 자기 마음 내키는 때 찾아오고, 자기 마음 내키는 때 달아난다. 그러나 가다 믿고 와 동지를 틀고, 지쳤을 때 찾아와 쉬며 푸념하는 것이 귀엽다. 그리고 가다 흥겨워 노래할 때, 노래 들을 수 있는 것이 또한 기쁨이 되지 아니할 수 없다.

나무는 이 모든 것을 잘 가릴 줄 안다. 그러나 좋은 친구라 하여 달만을 반기고, 믿지 못할 친구라 하여 새와 바람을 물리치는 일이 없다. 그리고 달을 유달리 후대하고 새와 바람을 박대하는 일도 없다. 달은 달대로, 새는 새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다 같이 친구로 대한다.

(중략)

나무에 하나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천명을 다한 뒤에 하늘 뜻대로 다시 흙과 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가다 장난삼아 칼로 제 이름을 새겨 보고, 흔히 자기 소용 닿는 대로 가지를 쳐 가고 송두리째 베어 가곤 한다. 나무는 그래도 원망하지 않는다. 새긴 이름은 도로 그들의 원대로 키워지고, 베어 간 재목이 혹 자기를 해칠 도끼 자루가 되고 톱 손잡이가 된다 하더라도, 이렇다 하는 법이 없다.

나무는 훌륭한 견인주의자<sup>2)</sup>요, 고독의 철인<sup>3)</sup>이요, 안분지족의 현인이다.

불교의 소위 윤회설이 참말이라면, 나는 죽어서 나무가 되고 싶다.

‘무슨 나무가 될까?’

이미 나무를 뜻하였으니, 진달래가 될까 소나무가 될까는 가리지 않으려다.

- 이양하, <나무>

[어휘 풀이] 1) 득박 : 얻은 것이나 주어진 것이 적음. 2) 견인주의자 : 육체적인 욕구를 의지의 힘으로 억제하려는 주의나 주장을 가진 사람. 3) 철인 : 어질고 사리에 밝은 사람. 철학자.

3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조의 변화를 통해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②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점층적 표현을 통해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④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설의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이 작품은 작가가 광해군의 폭정에 상소하였다가 함경북도 회령에 유배되었을 때 창작되었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당시 정치 상황에 굴복하고 자신의 뜻을 바꾸는 속된 선비들과는 달리 시류에 영합하지 않겠다는 고고한 정신을 드러냈다. 또한 유배지에서 힘든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과 씩씩한 기상을 드러냈다. 작품에 사용된 소재들은 당대의 상황과 이에 따른 작가의 삶의 자세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① ‘술’이 ‘풍상’을 겪는 모습을 통해 당시 정치 상황 속에서 시련을 겪는 작가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군.
- ② ‘봄 빛’은 자신의 뜻을 바꾸는 속된 선비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작가가 지니고자 하는 삶의 자세라 할 수 있군.
- ③ ‘춘광(春光)’을 마다하고 피는 ‘국화’를 ‘칭고한 내 벗’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시류에 영합하지 않겠다는 작가의 고고한 정신을 느낄 수 있군.
- ④ ‘눈 속’에서 핀 ‘매화’가 눈과 ‘한 빛’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당대의 정치 현실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대’ 나무가 ‘백설이 잦은 날’ 부는 찬바람을 ‘청풍’이라 여기고 이를 반긴다고 표현한 것에서 작가의 씩씩한 기상을 엿볼 수 있군.

35. [가]의 ㉠과 <보기>의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고즌 므스 일로 꿰며서 쉬이 디고,  
 풀은 어이흐야 프르는 듯 누르느니,  
 아마도 변터 아닐손 ㉡바회썸인가 흐노라.  
 - 윤선도, <오우가(五友歌)> 中 제3수

- ① ㉠은 가변성을 지닌 존재이고, ㉡은 불변성을 지닌 존재이다.
- ② ㉠은 강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이고, ㉡은 불모성을 지닌 존재이다.
- ③ ㉠은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이고, ㉡은 고독을 느끼게 하는 존재이다.
- ④ ㉠은 긍정적인 속성을 지닌 존재이고, ㉡은 부정적인 속성을 지닌 존재이다.
- ⑤ ㉠은 현재를 성찰하게 하는 존재이고, ㉡은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존재이다.

36.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글쓴이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 ② 타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 ③ 고독을 경험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 ④ 타인으로 인해 상처를 받는 일이 있더라도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 ⑤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 규원가(閨怨歌)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507월 교육청]

- 허난설헌, <규원가(閨怨歌)>

- 1) 군자 호구: 군자의 좋은 배필. 『시경』의 구절에서 따온 말.
- 2) 화표: 묘 앞에 세우는 문. 망주석 따위가 있음.

옛그제 젊었더니 하마 어이 다 늙거니  
 소년 행락(少年行樂)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없다  
 늙어서야 **서러운 말** 하자 하니 목이 멘다  
 부생모육(父生母育) 신고(辛苦)하여 이내 몸 길러 낼 제  
 공후 배필(公侯配匹)은 못 바라도 군자 호구(君子好逑)<sup>1)</sup>  
 원하더니  
 삼생(三生)의 원업(怨業)이요 월하(月下)의 연분(緣分)으로  
 장안(長安) 유협(遊俠) 경박자(輕薄子)를 꿈같이 만나 있어  
 당시에 마음 쓰기 살얼음 디디는 듯  
 삼오 이팔(三五二八) 겨우 지나 천연 여질(天然麗質) 절로  
 이니  
 이 얼굴 이 태도(態度)로 백 년 기약(百年期約)하였더니  
 연광(年光)이 훌훌하고 조물(造物)이 시샘하여  
 봄바람 가을 물이 베을에 북 지나듯  
 설빙화안(雪鬢花顏) 어디 가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었구나  
 나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임이 날 사랑할까  
**스스로 참괴(慚愧)하니** 누구를 원망(怨望)하라  
 (중략)  
 돌이켜 풀어 헤아리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청등(靑燈)을 돌려 놓고 녹기금(綠綺琴) 비스듬히 안아  
 벽련화(碧蓮花) 한 곡조를 시름 좇아 섞어 타니  
 소상야우(瀟湘夜雨)의 댓잎 소리 섞여 도는 듯  
 화표(華表)<sup>2)</sup> 천 년(千年)의 별학(別鶴)이 울고 있는 듯  
 옥수(玉手)의 타는 수단(手段) 옛 가락 있다마는  
 부용장(芙蓉帳) 적막(寂寞)하니 뉘 귀에 들리겠는가  
 간장(肝腸)이 구곡(九曲) 되어 굽이굽이 끊겼어라  
 차라리 잠이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벌레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가  
**천상의 견우직녀(牽牛織女)** 은하수 막혔어도  
 칠월 칠석(七月七夕) 일 년 일도(一年一度) 실기(失期)치  
 않거든  
 우리 임 가신 후는 무슨 약수(弱水) 가렸관대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그쳤는고  
 난간(欄干)에 빗겨 서서 임 가신 데 바라보니  
 초로(草露)는 맺혀 있고 모운(暮雲)이 지나갈 제  
 죽림(竹林) 푸른 곳에 새소리 더욱 싫다  
 세상(世上)의 서러운 사람 수없다 하려니와  
 박명(薄命)한 홍안(紅顏)이야 **나 같은 이 또 있을까**  
**아마도 이 임의 뜻으로 살동말동 하여라**

[19%]

3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거를 회상하며 현재의 처지에 대해 탄식하고 있다.
- ②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음악적 효과를 얻고 있다.
- ③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슬픔을 심화하고 있다.
- ④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⑤ 대구법을 사용하여 운명에 맞서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1%]

3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규원가>는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는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그 원인이 자신에게도 있음을 한탄하는 규방 가사이다. 이 작품은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예속되었던 조선 시대의 봉건적 윤리 속에서 작가 자신이 여성으로서 겪어야 했던 외로움과 한을 다양한 비유적 기법을 사용하여 품격 높은 시적 감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① ‘서러운 말’ 에는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화자의 운명과 처지에 대한 한이 담겨 있겠군.
- ② ‘스스로 참회하니’ 를 통해 화자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 대해 자신을 책망하고 있군.
- ③ ‘천상의 견우적녀’ 는 임과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화자의 처지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화자의 슬픔을 대변하고 있군.
- ④ ‘나 같은 이 또 있을까’ 를 통해 화자는 홀로 지내는 자신의 외로움을 강조하고 있군.
- ⑤ ‘아마도 이 임의 탓으로 살동말동 하여라’ 에는 남편을 원망하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 있군.

[12%]

39. 윗글과 <보기>의 ‘꿈’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한밤중에 혼자 일어나 문노라 이내 **꿈**아  
만리(萬里) 요양(遼陽)\*을 어느 사이에 다녀온고  
반갑다 학가 선용(鶴駕仙容)\*을 친히 뵈 듯하여라  
- 이정환, <비가(悲歌)> 제1수

1) 요양: 청나라 심양.

2) 학가 선용: ‘몽세자가 라면 수레와 ‘신선의 용모’를 뜻하는 말로, 홀로 잠자간 두 명사를 이룸.

- ①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바탕이 되어 있다.
- ② 화자의 내적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 ③ 대상에 대한 비판 의식을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 ④ 화자와 대상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
- ⑤ 현실의 문제가 환상이라는 장치로 극복된 결과를 보여준다.

## 사미인곡(정철)

- 1) ㉠ ㉡ ㉢ [작품간의 공통점 파악] (가)에서 화자는 겨울과 봄을 맞이하여 자신의 정성이 담긴 ‘매화, 옷’ 을 보내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화자는 사랑하는 대상을 직접 만나지 못하기에 이렇게라도 임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이려 하는 것이다. (나)의 1연에서 춘향이는 정화수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임을 기다리며, 2연에서는 푸른 산, 언덕들을 바라보며 바람같이 떠나간 임을 기다리며 그리움에 잠겨 있다. (다)의 화자는 너를 너무나도 절실히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너는 쉽게 오지 않기에 결국 화자는 너에게 가기로 했다. 세 작품 모두에서 사랑하는 대상과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 2) ㉠ ㉡ ㉢ [시구의 함축적 의미의 파악] <보기>에서 시적 화자는 멀리서 임금이 있는 궁궐을 그리워하며 빨리 돌아가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 하지만 궁궐로 돌아가지 못하는 화자의 슬픔은 두견새의 울음이나 대나무의 찢어짐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이러한 화자의 시름이 머리털이 하얗게 되는 것으로 표현된 것이다. 그러므로 ㉠에서 시름 많은 화자의 모습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 ① 눈 속에 매화가 두세 가지 피어났다는 것이다. 이 매화는 화자의 마음을 담아내는 소재이다. ② 달이 베개 근처에 비치는 것으로 화자는 달을 임으로 인식하고 있다. ④ 금자로 재어서라는 뜻으로 임의 옷을 지어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 3) ㉠ ㉡ ㉢ [시상 전개 과정의 파악] 시적 화자는 봄이 오자 ‘가득이나 냉담’ 한 현실이 극복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즉, 동풍이 불어 쌓인 눈을 헤쳐 낸 것처럼 자신에게도 봄이 찾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매화 가지를 꺾어 임에게 보냄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한다. 여름이 되자 ‘새 잎이 나고 녹음’ 이 우거진 것을 보며 화자는 또한 기대감을 가진다. 비록 지금의 현실은 나위가 적막하고 수막이 비어 있어 임의 부재를 느끼고 있지만, 화자는 임의 옷을 지어 보냄으로써 이러한 외로움을 극복해 내고자 한다.
- 4) ㉠ ㉡ ㉢ [시적 화자의 태도] (가)는 부모에 대한 그리움, (나)는 효도할 부모가 부재하는 안타까움(그리움), (다)는 미인(임금)에 대한 그리움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인 ㉣가 정답이다.
- 5) ㉠ ㉡ ㉢ [시어의 의미 파악] ㉠ ㉡ ‘어머님을 보고 싶은 욕망’ 이 충족되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시(가), ‘사랑하는 임-알고 보면 임금-과 함께 있고 싶은 욕망’ 을 충족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시(다)와 ‘탈속-일생 생활의 욕망에서 벗어나고자 함’ 과는 전혀~ 양립할 수 없겠지요.
- ㉣ ㉣ “(가)의 ‘바람’ 과 (다)의 ‘바람’ 은 화자의 내면과 관련이 있다.” 시 속의 자연물이 화자의 내면과 관련이 있다는 말은 무조건 맞는 말입니다. (다)의 경우 임과 만나지 못하는 화자의 답답한 내면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하기 위해서는 ‘바람 없이 잔잔한 수면’ 보다는 ‘바람에 일렁이는 수면’ 이 보다 자연스럽겠지요. 그리고 ‘바람’ 이 ‘간신배’ 이나 ‘장애물’ 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그 ‘간신배 및 장애물’ 때문에 화자가 괴로운 것이기 때문에, 화자의 답답한 내면과 관련이 있다는 말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 고시8(정약용) - 누항사(박인로)

- 6) ㉠ ㉡ ㉢ [공통 특징의 파악] (가)에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현실이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제비’ 는 백성을 ‘황새’ 와 ‘뱀’ 은 지배층을 가리킨다. (나)에는 농사지를 준비는 다 해놓았으나 소를

빌리지 못해 농사를 짓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한숨이 나타나 있다. (다)에는 멀리 있는 내가 보지 못한 시골 생활의 괴로움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세 작품의 공통점은 불만족스러운 현실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①, ②, ④ 어느 작품에도 해당 사항이 없다. ③ (나)에서 엿볼 수 있다.

- 7) ㉠ ㉡ ㉢ [표현법의 이해] (가)는 제비와 황새, 뱀의 대비적 관계를 통해, 동물을 등장시켜 풍자적 효과를 거두는 방식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나)에는 자신의 처지와 그것에 대한 탄식을 설의적 방법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두 작품의 표현법을 이해하면 ㉡가 적절하지 않다. (나)는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물의 다양한 속성을 드러내는 작품이 아니다. ㉡ ① 제비(피해자)와 황새, 뱀(가해자)의 대비적 관계에 있다. ③ 동물을 등장시켜 백성들을 괴롭히는 지배층의 횡포를 풍자하고 있다. ※우의는 무조건 풍자!! ④ ‘하물며 교외(郊外)에서 취(醉)할 뜻을 갖을소냐’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가)는 화자가 자기 자신이 아닌 남(제비)에 대하여 노래하는 시이고 (나)는 화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 노래하는 시이다. (나)가 (가)보다 화자 자신의 내면을 더 잘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

- 8) ㉠ ㉡ ㉢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보기>는 작가 박인로가 사대 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현실에서도 소외된 끝에 안빈낙도의 가치를 삶의 양식으로 선택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훌륭한 군자들이 늙대 하나 빌려스라’ 는 자신이 선택한 삶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의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 권력욕에 빠진 위정자들에게 개한 비판을 보여 준다는 지적은 <보기>와도 작품과도 연관성이 없다. ㉡ ① ‘먼 들’ 은 박인로가 가까이 가지 못하는 현실을 가리키므로 심리적 거리감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자신을 벽에 걸려 있는 ‘쟁기’ 에 비유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③ 강호에서 살려는 꿈은 꾸었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실현하지 못한 것이므로 적절한 감상이다. ⑤ 자연 속에서 순리대로 늙어가겠다는 표현이므로 안빈낙도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어부단가(이현보)

- 9) ㉠ ㉡ ㉢ [작품의 공통점 파악] (가)의 화자는 소년의 당당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특히 마지막 연의 ‘별들 춤다 얼어붙고 너조차 미친들 어떠랴’ 에서 추위에 당당히 맞서는 소년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여기에서의 추위는 시대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담겨 있다. (나)는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고 싹을 틔우며 꽃을 피우는 나무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겨울은 암울한 고통의 시대 현실이며, 이를 이겨내는 나무는 시대 현실에 맞서 자유를 성취해 내는 민중들의 모습이라는 화자의 인식이 담겨 있다. (다)의 화자는 자연에서 한가로운 삶을 지내고 있다. 이러한 화자의 한가로움은 녹수와 청산을 바라보고, 흰 달을 바라보며, 어부 생활을 하며 바라보는 다양한 자연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 ① (다)에서만 자연과 화자의 물아일체를 엿볼 수 있다. ④ (나)에서 겨울 나무와 봄 나무의 대비는 사물 자체의 속성을 대비한 것이며, 이를 통해 인간의 삶의 모습을 담아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10) ㉠ ㉡ ㉢ [두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 비교] (가)와 (다) 모두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화자의 사고 전개 과정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① (가)에서는 큰 강이 묵 놓아 흐르고 여울이 돌에 부딪치는 것을 통해 청각적 이미지를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다)에는 자연의 풍경이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다. ② (다)는 4음보가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있기에 음악적 리듬감이 두드러진다. (가)에서는 한 연이 3행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규칙성은 있으나, 음보가 일정한 규칙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③ (다)는 2수의 초장, 3수의 초장, 4수의 초장 등에서 대구의 표현이 드러난다. ⑤ (가)의

2연 '자랐어라', 5연의 '서 봐도 좋다', 7연의 '미친들 어쩌라' 에서 영탄의 어조를 엿볼 수 있다. (다)에서는 각 수의 종장에서 영탄의 어조를 느낄 수 있으며 특히 2수와 4수에서 강하게 느낄 수 있다.

11) ㉠ ㉡ ㉢ [작품 감상의 적절성 평가] 화자는 ㉠에서 청산을 돌아보며 흰 달을 떠올리고 마음을 비우고 있다. 또한 ㉡에서 장안을 돌아보며 복잡한 세상을 떠올리지만 그곳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고 했다. 화자는 ㉠과 ㉡에서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지만, ㉢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때때로 ㉠의 생각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수의 종장에서 화자의 최종 선택은 ㉡가 아님을 알 수 있다. ㉣ ① '만첩' 은 화자가 살고 있는 청산과 속세가 그만큼 거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어부단가(이현보)

12) ㉠ ㉡ ㉢ [작품의 공통점 파악] (가)에서 화자는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알라.' 라고 말하면서도 '어주(魚舟)에 누어신들 잊은 때가 있으랴' 와 같이 자연을 벗하는 풍류적인 생활과 현실 지향의 내면 의식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고, (나)의 화자 역시 허무한 세상을 독을 차서 무엇하느냐는 벗의 설득을 듣고, 독을 차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3연에서 내적 갈등을 보여 주고 있다. 또 (다)에서도 힘겹고 고달픈 사랑으로 대하는 화자의 모습과 자식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지 못하는 감회를 피력하고 있는 '아버지라는 어설픈 것이 / 존재한다.' 에서 내적 갈등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나)와 (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다)에서 신발을 응시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나)에서 '이리 승냥이' 로 표현되고 있는 대상에 대한 비판적 어조를 확인할 수 있다.

13) ㉠ ㉡ ㉢ [작품의 종합적 이해] (가)를 보면 어주(魚舟)에 누워 시름 없이 살아가는 모습은 나타나지만, 배를 저어 바다로 나간다는 지, 직접 고기잡이를 하는 화자의 모습은 나타난다는 ②는 작품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 ① '천심(千尋) 녹수(綠水)', '만첩(萬疊) 청산(靑山)' 과 같은 자연의 공간과 '인세(人世)', '십장(十丈) 홍진(紅塵)' 과 같은 속세의 공간이 대비되고 있다. ③ 마지막 연에서 '장안(長安)' 은 '서울' 을, '북궐(北關)' 은 '궁궐' 을 의미하며, '제세현(濟世賢)' 은 '세상을 구제할 현명한 인재' 를 뜻한다. 따라서 화자의 몸은 비록 자연 속에 있지만, 내면 의식은 속세를 잊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장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이러한 걱정을 떨쳐버리려 애쓰고 있다. ④ 마지막 연의 '장안(長安)을 돌아보니 북궐(北關)이 천리(千里)로다.' 에서 속세와의 정서적 거리감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자신의 시름이 아니라 고는 하였지만, 세상을 구제할 현명한 인재가 있을 것이라는 말에서, 현실 정치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다.

14) ㉠ ㉡ ㉢ [표현상의 특징 파악 및 비교] <보기>는 날이 저물 때 편하게 쉬는 것은 순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눈이 쌓이고 낙엽이 덮인 길을 흥치며 걸어가, 눈 오는 밤 달이 서산을 넘도록 소나무 그림자가 비치는 창에 기대어 자연을 감상하겠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자신의 시에서 대조를 통해 이상과 현실을 나누어 보려 했다는 윤선도의 말(③)은 적절하지 않다. ㉣ ① 어부단가의 두 번째 수에서 '청산' 과 '월백' 의 색채적 대조가 나타난다. ② 어부사시사에도 눈의 '흰색' 과 '붉은 꽃' 의 색채적 대비가 나타난다. ④ 어부사시사의 가장 큰 특징은 후렴구를 통해 시 전체에 활기와 흥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반면에 어부단가에는 둘째 수의 '무심' 에서 보듯이 속세를 잊은 화자의 마음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⑤ 어부단가의 '무심' 은 다양한 시어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 추강에 밤이 드니~(월산대군)

15) ㉠ ㉡ ㉢ [작품 비교하여 이해하기] '밤' 은 [가]와 [나]에서 화자의

상황과 어울려 시적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시간적 배경이 있지만 하다면 무조건 맞는 말이겠지요.

16) ㉠ ㉡ ㉢ [작품의 시어를 비교하여 이해하기] ㉠은 욕심 없이 사는 삶을 보여주고, ㉡은 입을 보고 싶어 하는 정서를 심화한다.

※ "㉢은 화자의 정서를 유발한다." 역시 무조건 맞는 말이다. 시에서 화자의 정서를 유발하지 않는 사물은 없다.

### 만흥(윤선도)

17) ㉠ ㉡ ㉢ [작품의 공통점 파악] [가]에서는 현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춘향이의 초월적 지향이 첫 연과 끝 연에 나타나 있고, [나]에서는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에 비해 현실의 고통에 묶여 있는 화자의 상태를 첫 연과 끝 연에서 대응시키고 있다. 따라서 두 시는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킴으로 해서 화자의 정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①, ② 둘 다 시간의 경과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객관적 시각이 아니라 주관적 시각에서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④ [가]와 [나]는 자연과 인간의 대립이 나타나 있지 않고, [다]는 오히려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드러내고 있다. ⑤ [가]는 호소적 어조가, [나]는 탄식적 어조가, [다]는 감탄적 어조가 나타나 있다.

18) ㉠ ㉡ ㉢ [시어의 기능 파악] [다]의 '띠집' 은 현실에서 벗어난 이상적인 세계를 뜻하면서도 동시에 임금의 은혜를 이제 더욱 알 것이라고 하면서 현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암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실에서 벗어난 것을 지향하면서도 동시에 현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기능을 하는 것을 찾으면 '그넛줄' 이 된다. '그넛줄' 은 머언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밀어 올려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초월적 지향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그넛줄에 매달려 있다는 점에서 그네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수양버들, 풀꽃더미, 나비, 꾀꼬리' 에 대한 미련 때문에 현실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⑥는 지상의 아름다운 사물, ㉠은 현실적 장애물, ㉡는 초월적 이상의 세계, ㉢은 현실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존재를 의미한다.

19) ㉠ ㉡ ㉢ [표현상의 특징 파악] ㉠은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르는 내 생각으로는 내 분수에 맞는 일로 여겨지노라' 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분수에 맞는 안분지족의 삶에 대한 겸손한 표현이므로, 자조적인 태도를 지닌 반어적 표현으로 볼 수 없다. ㉣ ① 원래 '나' 는 '나' 로 해야 어법에 맞는다. ② 밝은데 침침하다고 했으므로 모순된 표현으로 역설법에 해당된다. ④ 천자와 자신을 비교한 것은 과장법으로 자신의 만족감을 드러낸다. ⑤ 물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정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 의문이다.

### 만흥(윤선도)

20) ㉠ ㉡ ㉢ [주어진 두 시가 작품의 특징 파악] [가]에는 백화가 만발한 화창한 봄날 산의 경치를 즐기는 화자의 흥겨움이 잘 드러나 있고 [나]에는 자연과 더불어 한가롭게 유희자적하면서 살아가는 흥겨운 삶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두 작품은 모두 '자연에서 비롯된 화자의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 는 설명에 부합한다.

※ '감흥 = 정서' 그러므로 정답은 무조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말

21) ㉠ ㉡ ㉢ [시구의 의미 파악] '물러남' 은 현실적으로 정쟁에서 밀려나거나 임금의 부름을 받지 못하는 등 현실적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화자는 그런 외적인 이유를 내세우지 않고 '성이 게으르' 라는 것을 표면적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물러남이 몇몇하지 못하다는 진술은 시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 오우가(윤선도)

22) ㉠ ㉡ ㉢ (가)는 나무에 여러 가지 인간형을 비유하였고, (나)는

물·돌·솔·대·달의 자연물에 인간의 지조를 비유하였다. (다)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에도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생의 자세를, (라)는 바위에 인간의 의지를 투영하였다.

※ 이 정답도 무조건 정답일 수밖에 없는 말

- 23) ㉠ ㉡ ㉢ 구름(구름), 바람(바람), 꽃(꽃), 풀(풀)은 모두 변하는 ‘변덕스러운’ 존재에 해당된다. 그러나 나무는 그와 대조적 소재이다.
- 24) ㉠ ㉡ ㉢ ㉣ : 변덕 많고 수다스럽고 민지 못할 인간, ㉤ : 변덕 많고 일관성이 없는 존재, ㉥, ㉦ : 신념이나 의지를 흔들리는 시련, 또는 불안 요소

상춘곡(정극인) - 어용(설장수)

- 25) ㉠ ㉡ ㉢ (작품간의 공통점 파악) 세 작품에서 그려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은 모두 세속적인 삶의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 (가)의 화자는 부귀공명을 꺼리며, 청풍명월의 자연을 벗삼고 있고, 단풍누향의 소박한 삶에 만족하고 있다. (나)의 화자 역시 세속적 삶과 명예를 멀리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고 있는 어부이지만 자신의 삶에 만족감을 드러낸다. (다)는 실용적인 복숭아나무나 아무 쓸모없는 잡목이나 모두 생명을 가진 똑같은 것으로 대하고 있기에, 세속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 ㉠ ㉡ 어느 작품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 (나)에서 자연의 이미지와 인간의 세속적 삶의 대비를 통해 주제의식이 강조되고 있다. ㉣ 화자나 글쓰기가 현실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작품은 없다. ㉤ 세 작품의 화자 및 글쓰기는 자신의 현실적 삶에 만족하고 있다.
- 26) ㉠ ㉡ ㉢ (표현상 특징 파악) (가)에서는 화자가 봉두에 올라 멀리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곳에서 시각적 이미지가 강하게 느껴진다. 반면에 (나)에서는 화자가 살고 있는 자연 풍경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와 더불어 ‘노랫소리’의 청각적 이미지로 뱃사람인 화자의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 ㉠ ㉡ (가)에서 ‘공명도 날 꺼리고 부귀도 날 꺼리니’라 했으나, 사실 부귀공명이 주체이기보다는 화자가 이러한 것들을 멀리한다는 것이기에 주체와 객체가 전도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 (나)에서 어부의 삶을 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은 푸른색의 이미지로, 세속적 삶의 모습은 붉은 색의 이미지로 대비되어 있다. ㉣ (가)와 (나) 모두 마지막을 의문 형태로 마무리하고 있지만, 이는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고자 하는 설의적 표현이다. 그러므로 (가)에서는 ‘이만하면 만족한다.’로, (나)에서는 ‘부러워하지 않는다.’로 읽어내야 한다. ㉤ (가)에서는 봉두에 올라서 바라보는 풍경과 더불어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는 화자의 정서가 표출되어 있다. (나) 또한 안개 낀 호숫가와 배를 비추고 있는 달빛의 풍경과 더불어 세속을 멀리하겠다는 화자의 정서가 함께 드러나 있다.
- 27) ㉠ ㉡ ㉢ (감상의 적절성 평가) <보기>는 (나)의 화자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지 그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 준다. 즉, (나)의 화자는 고기잡이를 직업으로 하는 어부가 아니라, 은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어부라 했다. 그러므로 (나)에서의 자연은 화자와 교감과 소통의 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나)에서 달이 배를 비추고 있는 풍경은 화자가 살고 있는 어촌의 평화로운 풍경을 보여줄 뿐이지, 달에 인격을 부여한 표현은 아니다.
- 28) ㉠ ㉡ ㉢ (어휘의 함축성 파악) (가)의 화자는 흥에 겨워 ㉠을 손에 들고 산에 올라간다. 그리고는 산 위에서 마을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풍경에 심취해 있다. 그러므로 ㉠은 화자의 감흥을 자아내는 자연물이라 할 수 있다. ㉡는 (다)의 글쓰기가 복숭아나무나 잡목이나 같은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예로 든 대상이다. 즉, ㉡는 뒤에 이어지는 ‘가족나무, 상수리나무’와 대비되는 대상이고 이어지는 문장에서 의미를 추리해 보면 ‘어진 이’를 대변하는 것이다. ‘가족나무, 상수리나무’는 ‘어진지 못한 이’를 대변하는 것이다. ㉢ ㉣ 두견화는 봄의 계절감

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견회요(윤선도)

- 29) ㉠ ㉡ ㉢ (작품의 공통점 파악하기) ㉤ (가)의 화자는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한 채 나이만 먹은 것을 후회하면서 초라하고 덧없는 삶을 버리고 열정적인 삶을 추구하겠다는 내면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나)의 화자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꿈과 이상을 향해 나아가려는 내면의 결의를 드러내고 있다. (다)의 화자는 현재 자신의 삶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결백을 주장하며 신념에 충실한 삶을 살겠다는 내면의 의지와,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의 의지를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가), (나), (다)에는 ‘지향하고자 하는 삶에 대한 화자의 내면세계’가 드러난다는 공통점이 있다. ㉠ ㉡ 같듯이 보인다고는 할 수 있으나 그것이 심화되고 있지는 않다. ㉢ (가)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 (다)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 30) ㉠ ㉡ ㉢ (화자의 상황 파악하기) ㉤ (다)의 화자는 현재의 굴곡진 삶에서도 신념을 잃지 않고 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는 있으나, 유배와 같은, 현재의 삶을 굴곡지게 하는 외부적 조건을 제거하지는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는 적절하지 않다. ㉠ ㉡ ㉢ (가)의 화자는 자신의 지난 삶을 ‘연륜’, ‘초라한 경력’으로 비유하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한 지금까지의 삶을 떨쳐내고 이상적인 공간, ‘섬’으로 가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열렬한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한편, (다)의 화자는 지난날의 삶이 ‘망령’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행위는 임금을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당연한 것이었으며 (제2수), 자신이 해야 할 일인 ‘우국충정(憂國衷情)’을 변함없이 행할 뿐이라는(제1수) 의지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의 진술은 (가)와 (다)의 화자가 대화 상황 속에서 나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다. 그리고 (다)의 화자는 <제1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신념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의 진술도 적절하다.
- 31) ㉠ ㉡ ㉢ (시어의 기능 비교하기) ㉤ (나)의 ‘물보라’는 화자를 고난과 역경에 처하게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다)의 <제2수> ‘아모’는 ‘임’에게 화자에 대해 험뜯고 모함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물보라’와 마찬가지로 화자를 고난과 시련에 놓이게 했다는 점에서 그 기능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 32) ㉠ ㉡ ㉢ (자료를 활용한 작품 감상하기) ㉤ (다)의 <제3수>는 외로운 유배지에서 느끼는 ‘연군의 정’을 흘려가는 ‘시내’에 감정이입하여 표현하고 있다. 즉 화자는 끊임없이 흐르는 시냇물에 빗대어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의 안녕을 기원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 자신이 상소문을 쓴 것은 임금을 위한 충이었고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3수>의 내용이다. 사대부로서 임금이 잘못하면 잘못을 냉철하게 지적하는 것이 사대부의 충이라는 생각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이지 임금이 안부 따위를 걱정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대목이다.

우리가 임금이 안 추운지, 밥은 잘 먹는지, 걱정하는 따위를 걱정하는 무수리나 내시의 역할을 사대부의 충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사미인곡, 속미인곡의 영향인데 그 시들의 화자는 여자 코스프레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길!

㉠ ㉡ <제1수>에는 스스로의 믿음과 신념에 따라 살아갈 뿐이라는 강직한 성품이 드러나 있다. ㉢ 상소를 올리고 유배를 당하였으므로 상소를 올린 일이 무거운 법을 감수하면서도 임금을 위한 일이

었다는 화자의 인식이 나타나 있다. ④ <제4수>에는 유배지에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화자의 애절한 심정이 나타나 있다. ⑤ <제5수>에는 임금을 섬기는 마음과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인식이 드러나 있다.

### 사우가(四友歌)(이신의)

- 33) ㉠ ② [작품 간 공통점 파악하기] [가]의 2수에 국화를 '내 벗'이라고 의인화한 부분과 4수에 대숲이 청풍을 반긴다며 의인화한 부분, 그리고 [나]에서 나무를 '흙과 태양의 아들'이라고 의인화한 부분, 달을 '의리 있고 다정한 친구' 등으로 의인화된 부분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두 작품 모두 자연물을 통하여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 ① [가], [나] 각각 '사우'와 '나무'를 예찬하는 어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③ [가], [나] 모두에서 점층적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④ [가], [나] 모두 반어적 표현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⑤ [가]의 3수에서 '아니 귀(貴)고 어이리'에서 설의적인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나]에서는 그러한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 34) ㉠ ④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 감상하기] <보기>에는 유배 중인 작가에게 시련을 가져다 준 정치 현실에 변화의 조짐이 드러난다는 단서는 찾을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1수의 술에게 풍상, 즉 바람과 서리는 시련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므로 정치적 시련을 겪는 작가의 상황으로 볼 수 있다. ② 봄 빛을 가진 소나무는 불변성을 의미하므로 뜻을 바꾸는 속된 선비와는 다른 작가의 삶의 자세로 볼 수 있다. ③ 안온한 삶을 의미하는 춘광을 마다하고 국화를 벗으로 삼는 것은 작가의 고고한 정신이라고 볼 수 있다. ⑤ 한겨울의 매서운 바람을 청풍이라 여기고 반기는 것은 유배지의 힘겨움을 이겨내는 씩씩한 기상이라 볼 수 있다.
- 35) ㉠ ① [다른 작품과 비교하기] ㉠은 겨울이 되면 사라지는 가변성을 지닌 존재이고 ㉡은 가변적인 꽃과 풀과 대비되는, 불변성을 지닌 존재이므로 적절하다. ㉡ ② ㉠은 겨울이 되면 간 곳 없으므로 강한 생명력과는 무관하고 ㉡은 변하지 않는 성질을 지닌 사물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은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로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은 가변적이므로 부정적인 속성을 지녔고, ㉡은 긍정적인 속성을 지녔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은 화자를 성찰하게 하는 존재일 수 없고 ㉡은 과거 회상과 무관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36) ㉠ ③ [글쓰이의 생각 파악하기] 고독을 경험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삶의 깨달음의 내용은 찾을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천명을 다한 뒤에 하늘 뜻대로 다시 흙과 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달을 유달리 후대하고 새와 바람을 박대하는 일도 없'고 '달은 달대로, 새는 새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다 같이 친구로 대' 한다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사람은 가다 장난 삼아 칼로 제 이름을 새겨 보고, 흔히 자기 소용달는 대로 가지를 쳐 가고 송두리째 베어' 가는 등 나무에 상처를 줌에도 나무는 '원망하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나무는 주어진 분수에 만족할 줄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규원가(허난설헌)

- 37) ㉠ ⑤ ㉡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소상야우의 덧임 소리 섞여 도는 듯 화표 천 년의 별학이 울고 있는 듯'과 같이 대구법이 사용되었지만, 녹기금 연주소리에 대한 표현일 뿐 운명에 맞서려는 의지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 38) ㉠ ③ ㉡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천상의 견우직녀'는 화자의 상황과 달리 일 년에 한 번은 만날 수 있으므로,

화자의 슬픔을 대변한다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39) ㉠ ① ㉡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하기] 본문의 '꿈'은 그리운 임을 보기 위한 수단이며 <보기>의 '꿈' 역시 불모로 잡혀간 두 왕자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한 것이다. ㉡ ② 화자의 내적 갈등은 현실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다. ⑤ 현실의 문제가 꿈을 통해 극복되지 않았으므로, 그 결과 역시 나타나지 않는다.